

순창군 농어촌기본소득 효과 뚜렷

주민 · 가맹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주민 삶의 질 향상 · 지역경제 긍정적 영향 확인

순창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창군은 농어촌기본소득의 정책 효과와 지역 내 소비 선순환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지난 3월과 6월 주민과 가맹점을 대상으로 1·2분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는 주민 1,000명과 가맹점 388개소가 참여했다.

조사 결과, 농어촌기본소득이 거주 여건과 사회서비스, 주민 간 관계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민들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분기와 비교해 '매우 높음' 응답이 6%p 증가하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주민들의 체감 효과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기본소득은 주로 식품과 생활품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품목을 구매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고 생활 안정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경제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확인됐다. 가맹점의 지역 내 원자재



순창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 비율은 51%로, 1분기보다 7%p 증가했다. 이는 가맹점 매출 증가에 그치지 않고 지역 원자재 구매로 이어지면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 형성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군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먼 지역 생활서비스 확충과 가맹점 확대, 지역 내 소비 촉진 등 주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2분기 조사를 통해 농어촌기본소득이 주민의 생활안정뿐만 아니라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과 지역 내 소비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주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 반영해 기본소득이 지역경제의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더욱 촘촘하게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민선9기 공약사업 점검

실행력 · 속도전 · 군민 체감 성과 방점

임실군이 민선 9기 공약사업에 대한 완성도 높은 실행력과 속도감 있는 추진으로 군민 체감성과에 방점을 둔 행정력에 전력을 쏟고 있다.

군은 한득수 군수 주재로 민선 9기 71개 공약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구체적인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민선 9기 공약사업 이행계획 보고회'를 가졌다고 20일 밝혔다.

보고회는 한 군수를 비롯해 부군수와 국장, 소관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4대 군정방침인 △품요로운 농업경제 △감동지는 문화관광 △살맛나는 교육복지 △군민우선 열린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71개 공약사업의 추진방향을 집중 점검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군민과의 약속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약을 실질적인 정책 성과로 연결해 나가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군민의 일상과 직결된 생활 밀착형 사업부터 임실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 사업까지 공약별 추진계획을 구체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사업별로 연도별 예산 투입계획과 추진일정, 세부 실행과제, 부서 간 협업체계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사업추



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재원확보와 법적 절차, 행정상 장애요인등도 사전에 점검했다.

군은 이번 보고회에서 논의된 보완 사항을 반영해 오는 9월 중 민선 9기 공약사업 종합 이행평가단을 통해 이행과정을 객관적으로 관리한다.

또한, 추진 상황과 성과를 군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공약이행의 책임성과 신뢰도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특히, 군은 공약사업을 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고 '계획수립→추진→점검→보완→성과공개'의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 민선9기 핵심공약들이 임기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 대산면 청년농촌보급자리 조성사업 입찰 공고 진행

남원시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청년 가구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농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 중인 대산면 청년농촌보급자리 조성사업 입찰 공고를 진행하는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했다.

시는 현재 진행 중인 공사 입찰공고 절차가 8월 중 마무리되는 대로, 시공사 선정 및 계약 체결 등 후속 행정절차를 신속히 완료하고 곧바로 본공사에 착공할 계획이다.

청년농촌보급자리 조성 사업은 농촌 교량화와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 공

모에 선정된 이후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등 주요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마치고 공사를 발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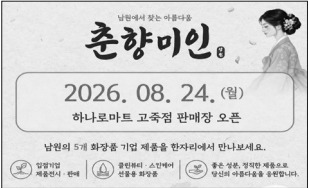
특히 이번 사업은 청년들이 농촌 유입 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는 주거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에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사업으로 대산면 신계리 일원에는 총사업비 100억원이 투입, 가족형, 신혼부부형, 청년형 등 가구 구성의 특성에 맞춘 임대주택 28세대와 주민 소통을 위한 커뮤니티센터 1동이 들어설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화장품 판매장 ‘춘향미인’, 남원농협 하나로마트 고죽점에 개장

남원시 바이오산업연구원(이하 연구원)은 남원지역 화장품 기업의 판로 확대와 소비자 접점 강화를 위해 화장품 오프라인 판매장 '춘향미인'을 오는 24일 남원농협 하나로마트 고죽점에 개장한다고 밝혔다.

춘향미인은 소비자가 남원 화장품을 직접 보고 체험하며 구매할 수 있는 상시 오프라인 판매 공간으로, 그간 진행된 단기 팝업스토어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화장품 기업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매출 증대

를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판매장에는 남원 관내 5개 화장품 기업이 참여, 각 기업의 대표 브랜드인 앤서가든, 17아워즈, 오브란, 마리브, 립포디아 제품 총 30종이 입점하며, 지리산 등 지역자원과 자연 유래 성분, 기능성 원료를 활용한 기초·기능성 화장품부터 스킨·바디케어 제품까지 폭넓게 만나볼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최영일 순창군수, 주요 현안사업장 현장 방문 나서

최영일 순창군수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관내 주요 현안사업장을 잇따라 방문해 사업 추진상황과 현장 애로사항을 꼼꼼히 점검하고,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군민 생활과 지역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업의 추진상황을 직접 살피고, 사업 현장에서 제기되는 목소리를 군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18일, 공설운동장 내 복합트레일센터 건립사업장을 찾아 사업 추

진현황을 보고받고 공사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주요 시설과 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했다. 이어 기업연계 청년근로자 기숙사 조성사업과 다화용기 세척장 리모델링 사업, 권일송 시인생가터 등을 차례로 방문해 각 사업의 추진상황과 현장 여건을 살피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요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19일에는 기숙형 비즈니스센터를 시작으로 치유농업 농촌테마파크, 섬진강 정군목 진입도로 개설사업, 농촌유



학 거주시설, 섬진강 파크골프장, 공설추모공원 등 주요 사업장을 차례로 방문했다. 부서 관계자들과 함께 각 사업장의 추진상황과 현장 여건을 꼼꼼히 점검하고, 사업별 현안과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 을지연습 실제훈련 실시

순창군은 지난 19일 국민체육센터에서 민·관·군·경·소방 합동으로 '2026년 을지연습 실제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적 특수부대가 국민체육센터에 침투해 인명피해와 화재, 전기·통신시설 두절 등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훈련에는 군부대와 경찰, 소방, 보건 의료원, 한국전력공사, KT, 자율방재단 등 관계기관 및 단체에서 약 150명이



참여했으며, 장갑차와 구급차, 소방차, 드론 등 총 23대의 장비가 투입됐다.

훈련은 적 특수부대의 침투 및 시설 공격, 군·경의 합동 소탕작전, 경찰의 현장 통제, 부상자 구조·후송 및 응급처치, 화재 진압, 전기·통신시설 복구, 현장 방역 순으로 실전과 같이 진행됐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임실군, 딸기 농가 경쟁력 강화 위해 본격 지원

임실군이 최근 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딸기 재배 농가의 경영 부담을 덜고, 고품질 딸기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임실군은 총사업비 16억원을 투입해 딸기육묘 지원사업을 비롯한 3개 분야의 딸기 산업 육성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의 핵심인 딸기육묘 지원사업은 총 8억원 규모로 진행된다. 관내에 실거주하며 딸기를 재배하는 농업을 대상으로 총 106만 여주의 딸기육묘 구입비를 영농 시기에 맞춰 적기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의 대부분은 지역 딸기 생산의 중심축인 임실 딸기 공선출하회 소속 농가들이다.

임실군은 육묘비 지원과 더불어, 고품질 딸기 재배에 필수적인 과채류 농자재(산토, 양액비료, 친환경약제 등) 지원사업을 함께 추진하여 농가의 영농비절감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보건소, 저소득층 어르신 요실금 의료비 지원

남원시보건소는 요실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요실금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요실금은 노년층에서 흔하게 발생, 위생상의 불편뿐만 아니라 사회활동 위축과 심리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중요하다.

이에 남원시보건소는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요실금 관련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60세 이상 요실금 진단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이며, 요실금 치료를 위해 해당 연도에 발생한 검사비, 약제비, 물리치료비, 수술비 등의 본인부담금을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단, 긴급복지 의료지원이나 실손보험금 등 다른 기관에서 동일한 의료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황희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통루(廣通樓)라 불렸다고 한다. 광한루(廣漢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경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인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돌리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은 남아 놓았는데, 여덟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뒷마루와 난간을 돌리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제단은 조선 초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에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

전주매일 캠페인